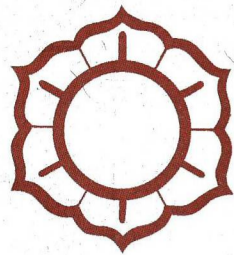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흙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03년
6월 2일
월요일
제45호

이 달의 종조법설

대승의 보살행은 결코 관념적인 의지의 세계가 아니고 생생한 인생의 고락을 겪으면서 이것을 인격화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수행이다. 사람은 극고와 극락을 당하여 그 인격을 알 수가 있다.

발행인: 법공 편집인: 김용주 인쇄인: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02)552-1081

총지종의 거룩한 별 떨어지다



종령 특정 대종사 고결식에서 승단대표인 의강 종사가 극락왕생을 발원

"오늘따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삼라만상이 갑자기 멈추어 선 듯합니다. 한평생을 불문에 바쳐 한결같은 수행정진으로 일관해 오신 대종사님께서 사바의 인연을 거두고 이렇게 열반에 드시니 이것이 대종사님의 무상법문(無常法門)이신가요?
이세상의 생멸거레가 부질없는 꿈속의 일이라 하겠지만 대종사님의 열반에 저희들은 태산이 무너지듯 정진이 아득하여 그 망극함을 무엇이라 이를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4일 새벽 5시 주석처인 성남 기로원에서 입적한 종령 특정 대종사의 고결식이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총지종 통리원에서 교계 관계자 및 내외귀빈 전국 스승,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후 성남 시립회관에서 다비식을 가졌다.
이날 고결식은 개식사, 무상계독송, 광명진언, 실지정진, 행장소개, 고결사,

조사, 반야심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의위원장(통리원장 법공)은 조사에서 "수일전만 해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희들과 함께 춘계 강공회에 참석하시어 평소와 다름없이 종단업무를 처리하셨는데 너무도 갑작스런 대종사님의 열반 앞에 망연자실하였으며 창종 이후 어려운 종단살림을 맡아 오시면서 종단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대종사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진취부지의 대서원과 대정진의 힘이었다고 봅니다."

부디 종단과 저희들의 크나큰 인연을 생각하시어 오늘 비록 저희들 곁을 떠나시더라도 극락정토에 가시옵고 종단발전과 깨달음의 저 언덕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명과 번뇌의 속박에서 지해와 성취의 길로 들게 하소서"라고 말했다.
승단대표로 중앙총의회 의장인 의강

종령 특정 대종사 고결식

종사는 "아무리 생각이 일여하고 오고감이 불이라 하나 무엇이 바쁘셔서 이리도 속절없이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던 말입니까? 일생을 오직 중생제도와 종단발전에 매진하셨던 큰 스승님이셨고 자비와 인과를 법으로 삼아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고 굳건한 사명감과 깊은 신심과 발심으로 일관해 오셨던 종단생활과 인생영육을 같이 나누며 끝까지 중생제도의 본회를 남김없이 펼치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바빠 가시니 통애의 큰 슬픔은 끝이 없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서방 부처님께 대종사님의 왕생극락을 빌며, 삼가 영전에 명복을 고하옵니다."라고 하셨다.

또한 교도대표로 총지사 신정회회장인 김은숙 보살은 "대종사님께서서는 몸매한 저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실 때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모든 사랑을 다 하시며 천만 방편과 무량 법문으로 어둠에 헤매던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이시여! 영혼의 생명을 길러주신 한 없는 그 은혜를 다시 어느때 갚으며, 도리가 부족한 철었던 옛 기억을 다시 어느 때에 하소연 하오리까?"

저희들의 불민함을 널리 용서하시며, 일체 만상에도 애착과 염려를 놓으시고, 잠과 동안 삼매에 드시어 중생제도에 피로하셨던 그 정심을 쉬시옵다가 다시 사바에 출현하시와 그 도법을 더욱 밝히시며 고해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을 널리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불민하나 대종사님의 뜻을 이어 수행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내빈대표(진각종 전 통리원장 성초)는 "특정 대종사님의 갑작스런 열반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으며 부디 극락왕생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종령 특정 대종사는 속명은 김근으로 1920년 경북 경주 황남동에서 부친 김시도와 모친 운화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1939년 경주공립청년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포항선교부 주교를 역임하고 1978년 출세간위인 종사를 품수하고, 1980년 종령직을 승계받아 법자재유인

대종사를 품수받았다.

그후 2대, 4대, 6대, 7대 총지중 종령과 유지재단 이사장,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00년 2월 제7대 종령으로 추대되어 총지종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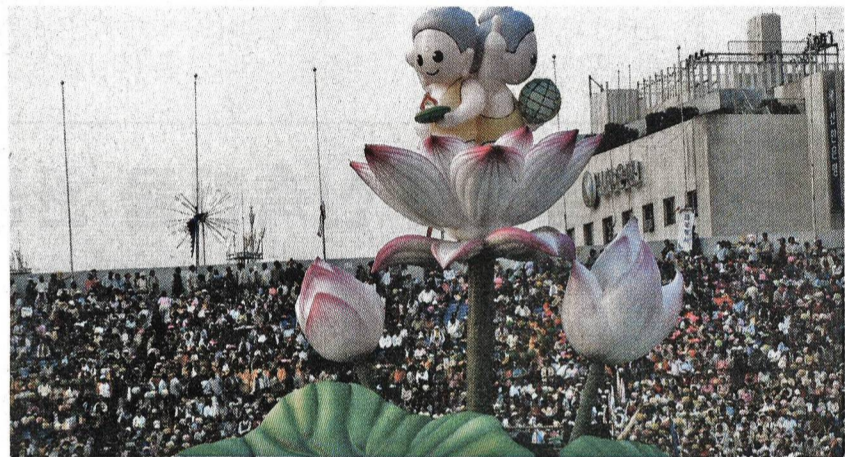
특정 대종사는 1972년 총지중 창종 구상원으로서 종조인 원정 대종사와 함께 총지종의 기틀을 마련하고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불공하는 총지중의 중지를 받들어 교화를 활성화시켜 불교계의 주요종단으로 성장시켰으며, 평소에 '화평하고 화합하여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되고 진실한 말을 행하고, 항상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선행을 행하라.'라는 법어를 강조하셨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춘계강공회와 전북 고창에서 열린 관불수련에 참가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전국의 모든 스승님들과 대담을 나누었으나 부처님 오신날을 며칠 남겨두고 입적하여 스승님과 교도들의 아쉬움을 더했다.

한편 장의위원회는 입적한 종령 특정 대종사의 서방정토와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49일동안 전국 사원에서 49재를 올릴 것을 결의하였다.

부처님의 참 깨달음으로 불자들의 한마당과 소원성취



대형 장엄물과 환희한 불자들로 가득 채워진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린 연등축제

부처님의 가지력과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여 우매한 중생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참다운 깨달음의 설법을 통하여 중생을 건지고자 속세의 연을 맺어 사바세계에 나무심을 봉축하기 위한 행사가 전국에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5월 4일 서울 동대문운동장과 조계사에서는 수만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각 단체 연희단과 봉축위원에서 준비한 어울림마당이 춤과 흥겨운 노래로 진행되어 불자들의 일체감을 연출하였으며 야간에는 웅장한 장엄물과 각양각색의 연등을 손에 들고 동대문 운동장과 조계사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신심을 고취시켰다.

한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대도시와 시, 군에서도 각 지역에 따라

특유한 행사를 진행하며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였다.

또한 5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 사원에서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신의 무명장수, 소망과 가정에 건강과 평화, 불우한 이웃에 행복이 깃들기를 염원하는 연등을 손수 제작하여 불을 밝히며 서원하였다.

이날 법회에는 전국의 모든 불자와 사부대중들이 법신 비로자나불의 가지력과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를 발원하였으며 청아하고 맑은 생명수와 같은 마음으로 무명을 버리고 번뇌와 고뇌를 해탈하여 부처님의 참 진리인 깨달음의 지혜로 불성을 가진 참다운 자신을 발견하여 행복할 삶을 영위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하였다.

죽비소리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다루고
배 만드는 사람은 배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룬다.

비구여, 배 안의 물을 퍼내어라
속이 비면 배가 가벼워질지니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면

그것이 바로 열반이 되리라

허술하게 지은 집에 비가 새듯이
수양이 없는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
든다.

잘 덮인 지붕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이 잘 된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
지 않는다. (법구경)



하반기 49일 불공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쳐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깨침이 필요한 것은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인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우리는 나와 이웃, 나와 세계를 나누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욕심을 내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 결과는 대립과 갈등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실다운 모습에 눈뜰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환됩니다. 전환된 삶은 나와 이웃을 돌로 보지 않은 삶이요, 동체대비의 삶입니다. 나와 남, 나와 세계를 나누던 나를 깨뜨리는 순간이 깨침입니다. 이번 하반기 49일 불공 동안 모든 불자와 교도들이 각자 부처님의 깨침 소리를 듣고 해탈하기를 서원합니다.

일시: 총기 32년 5월 28일~총기 32년 7월 15일

장소: 불교 총지중 전사원

대상: 모든 불자 및 총지중 교도



불교총지중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02)552-1080~2 / 전송: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사설

종단발전의 혁신을 바라며

오랫동안 종단의 수장으로서 종단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종단을 이끌어 오시던 목정 대종사께서 지난달 4일 열반에 드셨다. 창초초기부터 원정종조님을 보필하여 종단행정을 관할하고 종조님의 열반 후에도 종령의 중책을 맡아 종단을 운영하여오시던 목정대종사의 입적은 종단발전의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교세확장이 둔화되었던 원인의 하나에는 승직자들이 초창기에 보여줬던 교화의 열기가 식어버린 탓도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화형태와 방편이 구태의연했던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목정대종사께서 열반하시기 얼마 전부터 이러한 점에 인식을 같이 하시고 교화방편에 대한 몇 가지 점을 개선하도록 지시하셨다. 그 중의 몇 가지가 불전에서의 삼배와 법구의 사용, 그리고 법요시간의 조정에 대한 연구와 실수(實修)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신 것이었다. 고 목정대종사께서 이러한 변화를 보이셨던 것은 현재 종단발전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교화의 열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대중의 인식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실로 종단발전의 위대한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려는 참나 입적에 드시어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고 목정대종사의 이러한 유지를 계승하여 종단발전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새로운 종령의 선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향후 선출될 종령은 종단의 법통을 잇고 종단의 상징으로서 수행과 덕이 갖추어진 인물이 나와야 할 것이며 종단발전의 개혁적인 조치들을 격려하고 후원할 통찰력을 갖춘 분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종령의 중심은 통리원 위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과거와 같이 세부사항에 대해서까지도 종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종령은 단지 종단의 상징적 존재로서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와 함께 종단발전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것으로서 교화방편의 혁신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어 신중을 기한다. 우선 불단의 장엄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요의식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종단의 불사의례는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적합하나 대중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소속감을 불어넣기에는 너무 정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구의 사용과 법요시간의 조정 등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약간의 보완으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임을 깊이 자각하고 사리(私利)를 위하여 또는 현재의 안일을 잃을까 봐 변화를 두려워하여 개혁논의를 미루어두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승직자에 대한 복장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도 정비되어 재가종단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종정전반에 걸친 비합리성과 비능률적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여 모든 승직자와 종무원이 환화하게 교화와 종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몇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법령이 악용되고 왜곡되어 집행한 예들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이 기회에 과감히 청산되어야 할 것이며 장구한 종단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와 합리성에 기인하여 종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승단을 이끄는 승직자들의 현실에 대한 각성과 개혁에 대한 열의가 가장 중요하며 아울러 전 종무원과 종도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발전과 쇠락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개혁에 대한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종단의 흥망성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총지중 하반기 49일 불공

부처님의 깨침을 통해 해탈을 서원



◇하반기 49일 불공동안 전국 스승님들이 부처님의 깨침을 통해 해탈을 서원.

총지중 하반기 49일 불공이 5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49일 동안 전국사원에서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임제되었다.

하반기 49일 불공 임제에 즈음하여 통리원장 법공 종사는 종령을 대신하여 "우선 애석하게도 우리 종단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종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으며 모든 교도들의 총애를 받으신 목정 대종사님의 열반에 깊은 애도와 고인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불교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른바 생로병사의 통찰로부터 시작하여

그러한 문제로부터 완전한 해탈을 구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위를 헌신 짚처럼 버리고 출가한 것도 바로 그 근원적인 문제 때문이었으며, 보리수 아래서 이룬 정각이아말로 나고 죽는 생사에 있어 매듭의 완전한 해결이었습니다. 실로 불교는 우리들 삶의 구경에 대해 해답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의 종교성은 '깨침'에서 확인됩니다. 깨침은 주객의 대립이 완전히 초월된 '하나'의 체험이요, 말이나 생각으로도 그리기 어려운 궁극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침을 통해 '거룩한 것'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침의 종교인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쳐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깨침이 필요한 것은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인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우리는 나와 이웃, 나와 세계를 나누고 자기종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욕망을 내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 결과는 대립과 갈등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실다운 모습에 눈 뜰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환됩니다. 전환된 삶은 나와 이웃을 홀로 보지 않은 삶이요, 동체대비의 삶입니다. 나와 남, 나와 세계를 나누던 나를 깨뜨리는 순간이 깨집니다. 그 벽이 깨짐으로 분리, 대립되던 나와 이웃, 나와 세계는 비로소 통해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인 세계를 사는 삶이 다르 아닌 자비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부처의 가르침입니다."고 하시면서 "이번 하반기 49일 불공 동안 모든 불자와 교도들이 각자 부처님의 깨침 소리를 듣고 해탈하기를 서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흥국사 신축건물 완공

침체된 전주의 밀법시대 개막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며 전주지역 밀법시대 개막을 알리는 흥국사.

지난해 4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대해 307평을 매입하고 연면적 149.86평 총공사금액 6억2천만 원에 국토건설(대표 박종화)이 착공한 흥국사가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며 침체된 전주지역에 밀법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전주 흥국사는 총기2년 전주시에 한복점을 임차하여 전주선교부로 개설하고 초대주교로 자선원 전수를 임명하였다. 이어 총기5년 전주시 다가동2가

104-1번지를 임차하여 불단이설을 하고, 총기9년 고사동2가 대지75평과 건물을 매입하여 흥국사로 개칭하였다.

이후 현담 환수원, 대관전수님이 주교를 역임하였으며 총기25년 현주교인 밀공정 전수가 주교로 임명되어 재임하고 있으며 이번 5월 초에 신축건물로 이사를 하여 월초불공과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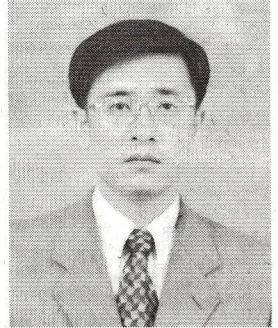
흥국사 회장보살은 "흥국사 초창기부터 총지중의 교도로 허스름한 집에서 비가오면 비를 맞아가며 겨우이 되면 벽사이로 술을 들이어서 찬바람을 두꺼운 이불로 막아가며 움마니만메움을 염송하여 불공한 공덕으로 자녀를 모두가 총지중의 교도로서 부처님의 법안에서 건강하고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고 있어 항상 부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번에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진언행자로서 열송할 수 있는 새로운 부처님의 도량이 완공되어 감개가 무량하며 밀법을 포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하였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2003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9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갈수록 가속화 되어 2019년이면 노인인구 70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4%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의 급격한 증가는 선진국과

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자취업알선사업은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취업알선사업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전체에 14개 취업알선센터가 있으며, 우리 센터는 강남·송파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관장 조영표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선정하였으며, 그중 첫 번째의 과제로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 노인 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교육 활성화 등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노인복지기관으로서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고령자 취업알선사업은 앞으로 더욱 더 확대 강화되어야 할 사업이며, 정부에서도 올 하반기나 2004년에는 노인취업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지원의 구성체로서 '노인인력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회 통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보다 많은 노

노인복지센터의 활동방향

실현현상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사업의 목적에 기여하고자 한다.

'노인문제'는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 노화에 따른 부양의 문제, 역할상실에 따른 소외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복지센터는 주간보호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간보호사업은 치매, 중풍 노인의 가정 내 부양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노인을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는 사업으로, 노인 부양부담을 가족과 사회가 함께 나눔으로써 노인의 시설입소를 감소시켜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효'를 실

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 세대 노인들은 평생 자식들과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이며,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아왔다.

최근 언론에는 "노인학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이는 '노인문제'를 가족만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모든 책임을 가족이 지도록 함으로써 생겨나는 병리 현상이다.

이제 노인문제는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의 문제이다. 노인에 대한 보다 많은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시점이다.

알림방

- ◇ 하반기 49일 불공 : 5월 28일~7월 15일
- ◇ 종령 목정 대종사 49세 : 총기 32년 6월 21일 14시 총지사서원당
- ◇ 총지사에 근무한 모심해 전수가 영전 단음사로 인사발령.
- ◇ 정각사에 근무한 원경시무가 통리원으로 인사발령.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3년 4월 18일부터 2003년 5월 18일까지

개천사 김옥희 10,000	만보사 이봉희 20,000	수인사 김진 10,000	자석사 정총기 10,000	지인사 김기백 10,000
개천사 박병선 10,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수인사 이순자 10,000	자석사 체춘자 10,000	총지사 이인성 20,000
개천사 박상순 20,000	밀인사 남방자 5,000	수인사 최공자 5,000	정각사 강길순 10,000	통리원 법공 50,000
개천사 송상규 30,000	밀인사 박순이 5,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정각사 김정남 10,000	통리원 인선 10,000
개천사 이정희 10,000	밀인사 안옥진 10,000	실보사 안경숙 5,000	정각사 김정연 20,000	혜정사 박종석 10,000
개천사 이희권 10,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실보사 이순옥 5,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혜정사 자성신 5,000
관성사 김홍조 10,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실지사 박미선 10,000	정각사 무명씨 10,000	혜정사 정길오 5,000
관성사 이혜윤 5,000	밀인사 허을순 10,000	실지사 손기성 20,000	정각사 무명씨 10,000	혜정사 조숙자 5,000
관성사 정인순 10,000	백월사 남철구 20,000	실지사 이숙례 3,000	정각사 박훈휘 10,000	흥국사 강문성 10,000
관성사 홍순화 10,000	백월사 박삼순 5,000	실지사 이옥분 10,000	정각사 윤원숙 15,000	흥국사 강한빛 10,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법천사 김정숙 5,000	실지사 이화수 10,000	정각사 이란이 5,000	후원금 납부방법
기로원 대관 10,000	벽룡사 무명씨 3,000	실지사 정경자 5,000	정각사 이수임 5,000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로원 대자행 10,000	벽룡사 박덕서 5,000	실지사 정경자 5,000	정각사 이옥희 35,000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기로원 법장화 10,000	벽룡사 박옥련 9,000	실지사 정우석 5,000	정각사 이용자 20,000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기로원 상지화 10,000	벽룡사 보심관 5,000	실지사 주영채 5,000	정각사 정금순 3,000	- 지로번호 : 7668610
덕화사 손선경 5,000	벽룡사 제애덕 6,000	실지사 황석순 10,000	정각사 정희연 10,00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덕화사 손희경 5,000	성화사 우담바라 100,000	운천사 김부자 10,000	정각사 조현필 30,000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만보사 강춘복 50,000	성화사 이배식 10,000	운천사 배도현 10,000	정각사 최옥심 10,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지석사 배무자 10,000	정각사 황영숙 10,000	
	수인사 김정숙 10,000		정심사 박옥란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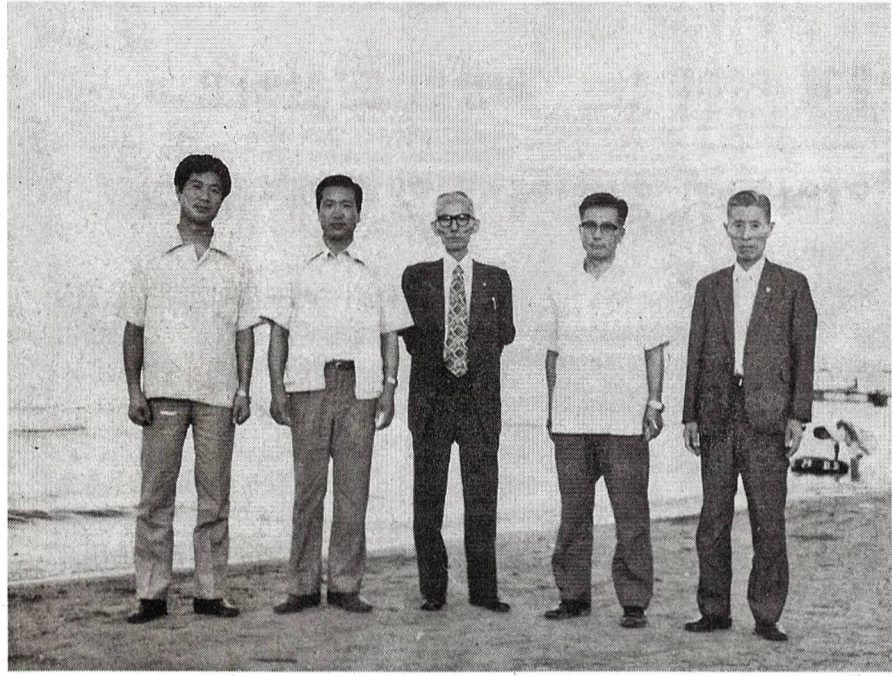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종령 특정 대종사 추모 기획 특집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불교 총지종 종령 특정 대종사

밀교의 정신으로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총지종의 최고 어른이며 반세기를 중생들과 함께 수행하며 불법을 전해왔으며 종조인 원정 대성사를 보필하여 총지종을 창종한 후 지금까지 총지종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셨던 분! 이제 속세의 연을 다하시고 무여열반의 세계에 원적 하시다.



1. 입 교

특정 대종사는 1920년 경주 환남동에서 탄생하였으며 불심이 돈독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평소부터 부처님과 인연으로 인해 학창시절부터 절에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절에 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칭찬을 하는 등 불심이 아주 깊은 집안이었다. 특정 대종사가 몸마니반배홍과 인연을 맺은 것은 결혼 후 처갓집에서 진각종의 전신인 참회원과 인연을 맺고 난 후이었다. 그때 특정 대종사는 "일본식 적산건물에서 몸마니반배홍하고 시끄럽게 큰소리 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무성하여 병자를 리어커에 싣고 오고 밤비에 밭도 해먹으면서 며칠 동안 몸마니반배홍하며 큰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그 당시 특정 대종사는 종교적인 경과 내용도 모른 채 단지 법당에 나가 절만 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생의 연으로 인해 불교에 대한 깊은 신심과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는 법문을 들으시고 중생제도의 큰 서원을 발하시어 밀교문에 입문하게 되었다.

2. 원정대성사와 총지종 창종

창종 전의 우리나라 불교계는 밀교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당시만 해도 밀교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다. 그런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인 '몸마니반배홍'을 뿌리 내리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육자진언염송법을 의계에 맞추어 창안하셨다. 즉 '육자의개법'을 정립하셨던 것이다. 창종과 더불어 밀교종단으로써의 면모에 걸맞게 모든 교상과 사상을 정립해나

르던 법제자와 교도들이 원정님께 밀교종의 창종을 간곡히 간청하여 창종하게 되었던 것이다. 종조님의 뜻에 동조한 많은 스승과 교도들이 원정님의 사상과 교상에 동의하고 육자의개법과 경전에 근거한 새로운 종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원정님의 수행정진과 스승, 교도들의 지원과 성원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비좁은 서원당이긴 하였지만 앉을 자리가 없었고, 원정 종조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이십리 밖에서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열의와 사명감으로 중생교화에 일했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때는 공생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라 오로지 부처님 법을 믿고 종조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교화할 때였으니까 어려움도 몰랐다.

한 일화로 종암동에 있을 때 원정님은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환당님은 따뜻한 곳에 못계시는 체질이고 내가 올라오면 원정님과 함께 잠을 잤다.

연단을 때면 방 전체가 따뜻해져서 원정님과 같이 잠을 자면 나는 더워서 밖으로 훌쩍쩍곤 하였다. 환당님은 별도의 다른 곳에서 주무시고 여름에는 옥상에서 자는 경우도 있었다.

환당님이 원정님과 함께 지내셨으므로 제일 가깝게 모셨고 나는 지방사원에서 교화를 하고 또 올라와서 종단의 일을 하는 2종의 일을 했다.

지방에 있으면서 원정님께서 어느 지방에 가서 일을 보라고 명령하면 즉시 방문하여 처리하여 지방일은 내가 전부 처리하였다. 다시말하면 야전사령관의 임무를 맡으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한때는 버스를 타고 다니며 은종일 3개 지방을 돌아다니곤 했다. 또한 종교단체로 인가를 받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동봉서주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같은 군소종단을 인가해주면 다른 많은 종단에서 인가를 해주어야 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번은 담당공무원이 시찰을 나왔는데 의형상 절의 형태도 아니고, 우리 형편은 보잘 것 없을 정도로 열악하여 종교단체

등록은 연기하고 당장 법인체는 승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정식적으로 인가를 받았다.

그 후 법이 개정되어 전통유물이 있는 곳은 전통사찰로 인정을 해주고 없는 곳은 재단의 형태를 인가 해주어서 종교단체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환연하면 총지종의 법인체 및 제반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였다. 또한 실천서원은 선교부에서 사원의 질 이력이 불올때 수인사에서 담을수자 참을인자를 생각하며 실천서원을 만들어 원정님께 동의를 구하니 결과를 보시고 승낙을 하여 의계에 실천서원을 삼입시켰다.

실천서원은 내가 마음에서 서원하고 부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특정 대종사의 수행

원정님께서 총지종을 창종하실 때 강조하신 것이 삼밀수행과 육행실천이었다. 이를 수행의 덕목으로 꼽으셨다.

지금까지도 수행의 제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원정 대성사께서는 창종과 함께 밀교의 의계법을 바로잡아 교도들에게 수도하는 방법과 덕목을 가르치면서, 신구의(身口意) 삼밀로써 좋은 업을 짓도록 하고, 나쁜 업은 추호도 짓지 마라 고 강조하셨다. 그래서 진언염송을 통해 본인의 허물을 깨우치고 자기참회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하였다.

자기의 허물을 알자는 것이다. 내 허물과 결점을 찾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진언염송의 정진에 있다. 육자진언 염송과 준제진언 지송을 지극히 하면 자연적으로 내게 있는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 진정한 참회야말로 내 마음을 바로 잡고 깨달음을 이루는 데 좀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길인 것이다.

4. 교화 생활과 일화

교도가정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꼈다. 모든 고통과 재난이 소멸될 때가 가장 보람되고 환희한 마음이었다.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은

등록은 연기하고 당장 법인체는 승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정식적으로 인가를 받았다.

그 후 법이 개정되어 전통유물이 있는 곳은 전통사찰로 인정을 해주고 없는 곳은 재단의 형태를 인가 해주어서 종교단체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환연하면 총지종의 법인체 및 제반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였다. 또한 실천서원은 선교부에서 사원의 질 이력이 불올때 수인사에서 담을수자 참을인자를 생각하며 실천서원을 만들어 원정님께 동의를 구하니 결과를 보시고 승낙을 하여 의계에 실천서원을 삼입시켰다.

실천서원은 내가 마음에서 서원하고 부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특정 대종사의 수행

원정님께서 총지종을 창종하실 때 강조하신 것이 삼밀수행과 육행실천이었다. 이를 수행의 덕목으로 꼽으셨다.

지금까지도 수행의 제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원정 대성사께서는 창종과 함께 밀교의 의계법을 바로잡아 교도들에게 수도하는 방법과 덕목을 가르치면서, 신구의(身口意) 삼밀로써 좋은 업을 짓도록 하고, 나쁜 업은 추호도 짓지 마라 고 강조하셨다. 그래서 진언염송을 통해 본인의 허물을 깨우치고 자기참회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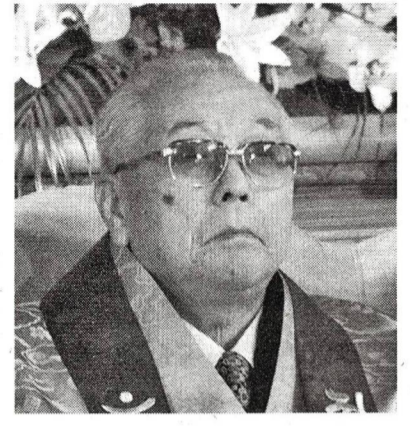
자기의 허물을 알자는 것이다. 내 허물과 결점을 찾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진언염송의 정진에 있다. 육자진언 염송과 준제진언 지송을 지극히 하면 자연적으로 내게 있는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 진정한 참회야말로 내 마음을 바로 잡고 깨달음을 이루는 데 좀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길인 것이다.

4. 교화 생활과 일화

교도가정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꼈다. 모든 고통과 재난이 소멸될 때가 가장 보람되고 환희한 마음이었다.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은

생전의 설법내용



(삼자독선정해 어제경법수순무쟁) 四者 不增不損 如所說行 (사자부증 불손 여소설행)

법을 설하는 자는 마땅히 네가지 법으로 행해야 하느니라 첫째는 많이 배워서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또 능히 일체의 언사와 장구를 갖추어야 하느니라. 둘째는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이 나고 멸하는 모습을 반드시 알아야 하느니라

셋째는 선정과 지혜를 체득하여 모든 경법에 수순하여 다른 생각이 없는 것이요 끝으로 보태지도 않고 줄지도 아니하며 설한대로 행하는 것이다. 포교에 있어 이를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르게 닦지 않고 지성으로 정진하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 사된 가르침이 되느니라. (총기30년 1월)

說法者 應行四法 (설법자 응행사법)

說法者 應行四法(설법자 응행사법) 一者 廣博多學 能持一切 言辭章句 (일자광박다학 능지일체언사장구) 二者 決定善知 世間出世諸法生滅相(이자결정선지 세간출세간제법생멸상) 三者 得禪定慧 於諸經法隨順無諍

것이 바로 스승의 마음이나, 특히 병자(病者)가 들어와 지심으로 불공하여 완패되었을 때, 또 가정화목과 병고해탈의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기쁘고 큰 보람을 느꼈다. 또 패역했던 자가 심성을 바르게 하고 부처님 말씀을 지심으로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는 스승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5. 현실에 대한 조명

과학이 발달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은 반면에 범죄와 불안 상태가 깊어지고 있다. 그 때 때 일수록 종교의 역할이 강조된다.

정신과 심성의 개발이 중요하다. 물질과 정신이 공존하여 발전하는 모습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사회병리의 모든 문제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먼저 상대의 허물을 탓하지 말고 내 허물의 모습을 바로 보고 고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화합과 단결을 이룰 수 있고, 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6. 종단발전을 위한 방안

승단의 스승양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도자도 손색이 없는 종교인을 육성해야 한다. 교도들의 수준은 높아야 하는데 스승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규스승채용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스승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스승이 되려고 하는 자나 승직자는 생활의 모든 면에 앞서고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종단

발전은 외적 성장에 중심을 두지 않고 내적인 모습을 갖추는 작업을 해야 하며 교화방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전과 지금의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는 고쳐나아가 할 것이다. 또 스승의 자질향상은 물론이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동안 항상 구호에만 그쳤는데,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한 가지라도 실행하는 중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화를 해보면 지식이 높다고 교화를 잘하는 것 아니다. 물론 지식도 있으면서 마음도 잘 닦으면 참 좋은데, 대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굳이 선후를 따진다면 먼저 마음의 닦음이 최고이고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인제 양성은 바른 심성을 함양하는 데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신규스승에 대한 교육과 스승의 재교육이 중요하다.

7.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당부의 말

종단전체는 화합과 협동이 제일 필요하다. 화합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화합이 우선되어야 단결심과 협동심이 일어나고 그 힘으로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승단 스승님들과 교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다.

(이 글은 1998년 6월 2일 불교텔레비전에 방영된 특집의 자나루 종령 특집과 2002년 종령 특별대담, 2003년 3월 기로연을 방영하여 녹취한 종단의 행정에 대한 기록에서 발취하여 작성하였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궁당 건립 추진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 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를 합니다.

회 원

-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 진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한빛은행 : 122-177171-13-104
 - ☞ 예 금 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④

태장계만다라의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

지난호에서는 태장만다라의 가장 중심인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중대팔엽원에 자리잡고 있는 오불(五佛)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오불 가운데 중앙의 대일여래를 먼저 살펴본다. (편집지주)

1) 중앙의 대일여래

중앙 대일여래의 밀호(密號)는 변조금강(遍照金剛)이며, 삼매야형(三昧耶形)으로는 오륜탑(五輪塔)을 이루고 있다. 존형(尊形)을 살펴보면 육색(肉色)은 황금색(黃金色)을 주로 하고 있고 오불(五佛)의 관(冠)을 쓰고 있다. 머리를 늘어 뜨리고 비단 등으로 된 가사형태의 조백(條帛)을 걸친 보살형(菩薩形)을 하고 보련화(寶蓮華)에 앉아 있다.

결인의 모습(印相)은 법계정인(法界定印)을 취하고 있다. 오른손바닥을 왼손바닥 위에 놓고,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어 결하는 수인(手印)이다.

우리 종단에서 '남' 자란을 행할 때 취하고 있는 바로 그 결인이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顯密圓通成佛心要集)』에서는 이를 '대삼매인(大三昧印)'이라 이르고 있다.

이 대일여래의 진언은 '나막 사 만다 북다남 아비라훤캬'라 한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



태장계만다라의 대일여래

대일여래의 지혜광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영겁도록 조명
인상의 법계정인은 모든 번뇌를 없애버린 깨달음을 상징

라 표현할 수 있다. 거기에서 출가불교에서 허식이라고 부정되었던 온갖 장식품에 대해서도 수행의 방해물로서가 아니라 거꾸로 불보살의 지혜와 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해석 하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보관(寶冠)이나 영락(瓔珞)은 전륜성왕(轉輪聖王), 즉 전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상의 제왕이 몸을 장식할 때 쓰는 장신구이다. 보관을 쓰고 영락을 걸친 대일여래는 불교세계의 전륜성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대일여래는 출가인의 이상적(理想的) 여래, 즉 모든 허식을 과감히 버린 부처와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보관(寶冠)이나 갖가지의 영락(瓔珞)으로 몸을 장식함으로써 여래 중의 최고의 여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 가르침이 현실세계 중에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여래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살의 형태를 취하면서 금강살타로서 중생구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대일여래의 보관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관에 오불(五佛)이 그려져 있다. 이는 곧 사불(四佛)이 대일여래라는 일신(一身)에 통합되어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일여래는 중대팔엽원의 중심이자 태장계만다라의 총체(總體)인 것이다. (자료제공 법장원)

는 일이 없고 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성중무(能成衆無)'라고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대일여래의 자비와 지혜의 활동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겁에 걸쳐 말하지 않기 때문에 '광무생멸(光無生滅)'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밀호(密號)를 변조(遍照)라고 한다.

진언 '아비라훤캬'은 대일여래를 뜻한다. 이 진언은 석존이 보리수 밑에서 마군을 물리치고 성도를 하였을 때, 범신(梵神)들이 '아비라훤캬! 오! 용자(勇者)여!'라고 찬탄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인상(印相)의 법계정인은 모든 번뇌를 없애버린 깨달음을 상징한 것이다. 바로 석존이 선정에 들어 깨달은 경지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 여래란 출가인들이 목표로 하는 이상향(理想郷)의 경계(境界)이다.

출가인에게는 표면적인 장식류가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박한 옷을 걸치게 되는데, 그대로 이상향인 여래상에도 장식없는 질소(質素)한 옷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여래상의 장식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대일여래는 장발(長髮)이며 머리에는 보관(寶冠)을 쓰고 몸에는 갖가지 영락(瓔珞)으로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자태는 그전까지의 출가 불교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지고 있었음을 알리는 것이며, 또한 대승불교의 지향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증거(證據)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대승불교란 쉽게 말해서 출가의 보살과 재가의 보살이 서로 손을 잡고 현실세계를 함께 헤쳐 살아가는 새로운 불교운동이

라 표현할 수 있다. 거기에서 출가불교에서 허식이라고 부정되었던 온갖 장식품에 대해서도 수행의 방해물로서가 아니라 거꾸로 불보살의 지혜와 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해석 하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보관(寶冠)이나 영락(瓔珞)은 전륜성왕(轉輪聖王), 즉 전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상의 제왕이 몸을 장식할 때 쓰는 장신구이다. 보관을 쓰고 영락을 걸친 대일여래는 불교세계의 전륜성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대일여래는 출가인의 이상적(理想的) 여래, 즉 모든 허식을 과감히 버린 부처와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보관(寶冠)이나 갖가지의 영락(瓔珞)으로 몸을 장식함으로써 여래 중의 최고의 여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 가르침이 현실세계 중에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여래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살의 형태를 취하면서 금강살타로서 중생구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대일여래의 보관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관에 오불(五佛)이 그려져 있다. 이는 곧 사불(四佛)이 대일여래라는 일신(一身)에 통합되어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일여래는 중대팔엽원의 중심이자 태장계만다라의 총체(總體)인 것이다. (자료제공 법장원)



한보살의 아름다운 세상

모성이 존중되는 사회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할머니와 함께 탄 어린 소녀가 있었다. 아이가 먼저 버스에 올랐기에 나는 얼른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내 무릎에 앉혔다. 곧이어 할머니가 건너편 자리에 앉았다. 아이는 할머니가 오라고 해도 가지 않았다. 나이를 물어보니 다섯 살이라고 했다. 가녀린 몸을 나에게 의지하고 내 무릎에 손을 얹고 있는 그 아이에게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엄마는 어디 있냐고? 없다고 했다.

엄마의 정이 부족한 아이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아파 오던 차에 할머니는 동네 분으로 보이는 앞자리의 다른 할머니한테 말을 건넸다.

보았다. 그러다 문득 그 아이의 엄마가 생각났다.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는데 통화도 못해보고 그냥 끊었을 때...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가슴 뻐어지는 슬픔이었다.

이혼율이 세계 3위를 달리는 우리 나라에서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생명의 근원이기에 다 큰 성인들에게조차 어머니라는 이름은 늘 가슴 뭉클한 단어가 된다. 그러므로 나이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니는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임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는 생명의 근원이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행동해야한다

"어젯 밤에 00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마 지 예비가 00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다는 얘기를 한 모양이야. 저 00엄만대요 하길래, 애들 잘 있으니 전화하지 말고 전화할 땐 물어봐. 제 발로 집나간 00이 무슨 자격으로..."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아이 엄마가 집을 나갔고, 지금 버스에 함께 탄 소녀 말고 손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 그 병원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집나간 며느리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할머니께 말하고 싶었다. '며느리이기 이전에 내 사랑하는 손주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아이들은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며느리가 밉더라도 금쪽같은 손주를 생각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시라고.'

하루 종일 그 아이 일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다시 그 일을 곰곰히 생각해

에 틀림없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는 곧 세상의 전부이다.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세상과 격리된 느낌, 혼자인 외톨이가 된 느낌일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존감이나 자신감 등이 부족해져서 성인이 되어도 일정한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혼은 어른들에게도 상처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마땅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일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상처 아닐까? 어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한테는 더없이 소중한 엄마이고 아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혐담이나 악감정을 내비치지 않는 것, 아이가 만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만나게 해주는 것 등 모든 것을 자신의 감정보다 아이 입장에서 생각 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불교연구개발원 연구과장 한주영)



이달의 명상

지옥, 축생, 아귀중생은 그 죄업과보 받음이 일겁이고 중간에 일찍 죽는 자가 있으며 복귀로주 사람들의 수명은 천년이고 중간에 일찍 죽는 자가 없다.

남섬부주에 사는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인데 중간에 일찍 죽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행동도 성질도 변한다.

10대에는 지각이 없고 20대에는 지각이 있으나 완전하지 못하고 30대에는 의욕이 왕성하고 이성엔 집착하게 되며 40대에는 아는 것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이 끝이 없고 50대에는 이치에 해박하고 익힌 것을 잊지 않으며 60대에는 재물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고 결단심이 없으며 70대에는 게을러서 잡자기를 좋아하고 육신은 둔해지고 성질은 느슨해져 버리고 80대에는 짧은 마음조차 없어져

서 몸을 가꾸고 꾸밈이 싫어지고 90대에는 병이 많고 피부는 푸르려져 주름살이 깊어지고 100대에는 모든 감각기관이 쇠퇴하고 뼈마디는 드러나고 정신은 혼미해져 건강망증이 심해진다.

만일 인간이 100년을 산다면 그만큼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그 수명도 참으로 하잘 것 없는 것이다. 남섬부주 인간 50년은 사천왕의 일일주야요, 인간 100년은 33천(도리천, 제석천)의 하루낮 하루밤에 불과하다.

삼계에 묶어가는 나그네

그러므로 짧아서 방 일하지 말고 촛음(寸陰)을 아껴 현재의 이 몸으로 바르게 수행하여 '나'라는 집착에서 생기는 번뇌망상과 전도몽상을 끊어 없애야 한다.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어찌 즐거울 수 있으며 어둠에 가려 있는데 빛을 찾지 않겠는가? 삼계의 하룻밤을 묶어가면서 부질없이 온갖 꿈을 다 꾸고 산다. 인생 100년 산다해도 참으로 짧은 하룻밤이다. (총지사 주교 법 등 정사)

감사의 말씀

佛敎 總指宗 宗領 祿靜 大宗師께서 總紀 32年(佛紀 2547年) 5月 4日 耆老院에서 入寂하시어 5月 13日 統理院에서 告訣式을 교계 관계자 및 내외 귀빈, 전국 스승님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總指宗 宗團葬으로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公私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애도의 심정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 일일이 찾아 뵈고 인사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황망한 喪中이므로 우선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紀 32年 5月

佛敎 總指宗 葬儀委員長 法空 합장

四十九齋案内

종령 특정 대중사의 사십구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다 음 -

	장 소	일 시
초재	총지사 서원당	5월 10일 (음력 4월 10일) 14시
2재	총지사 서원당	5월 17일 (음력 4월 17일) 14시
3재	총지사 서원당	5월 24일 (음력 4월 24일) 14시
4재	총지사 서원당	5월 31일 (음력 5월 1일) 14시
5재	총지사 서원당	6월 7일 (음력 5월 8일) 14시
6재	총지사 서원당	6월 14일 (음력 5월 15일) 14시
7재	총지사 서원당	6월 21일 (음력 5월 15일) 14시

◆ 지방은 각 사원별로 49재를 봉행함.

◆ 문의 : 불교총지종 통리원 전화 02) 552-1080~1083

총지논단

계율과 신조

본 글은 종조 원정 성사께서 서 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종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 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교(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르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있을 때마다 열의 하나를 정공희사(淨拱喜捨)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금도 줄이지 않고 하게 되니 적극적인 희사가 되느니라.

계율과 신조 ①

재래불교에서 부부는 갈아지지 않는 법을 주로 세워 왔고 심인불교에서는 한 남편과 한 아내로서 사는 법을 주로 세우게 된다. 부부간 불화한 사람이 교에 들어와 심공(心工)하는 사람은 자연 화합하고 결국 서로 뜻이 화목하여진다. 진각법을 믿고 율행생활하는 사람들의 정신은 절대 평온하리다. 가정이 화평하고 안하고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공히 책임이 있으나 그 근본은 아내에게 있는 까닭으로 아내로서 더욱 심공하여야 할 것이다. 아내가 바로 서야 남편이 바로 서고 남편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이는 고금을 통하여 전승되는 것이니 시대가 바뀌었다 하여도 그 믿음에는 틀림이 없어야 하느니라. 내 주장이 강하고서는 절대 화평과 화순을 가질 수 없다.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 논의를 하는 데서 서로의 존엄이 서게 되는 것이니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겨야 할 것이니라.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며, 나 자신을 규율하고 겸손하고 남을 귀히 여겨야 하느니라. 남의 허를 보지 말고 나를 엄히 다스려 단속하여야 하리라. 계율은 남을 구속하고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을 담금

질하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정신을 기리는 데 있느니라.

한 불교 안에서도 자기 종파(宗派)를 믿고 있으면서 저 종파의 설법을 듣더라도 종지를 굳게 세워 신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교에서 믿음이 타락되었거나 나의 근기와 믿음이 맞지 않거나 현세 행복을 이루지 못하고 자연



취미에 맞지 않을 때 이 교에다가 믿음을 완전히 끊고서 저 교에 간다고 해서 크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대로 저 교에서 믿음이 타락되었거나 나의 근기와 믿음이 맞지 않거나 현세에서 고통을 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자연 취미에 맞지 않아 저 교에다가 믿음을 완전히 끊고서 이 교로 옮기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느니라.

다만 내 믿음이 얼마나 깊으며 내 신심이 얼마나 돈독한가 하는 것이 더 중

요하느니라. 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이 종교 저 종교에 옮겨 다녀 본들 아무런 길잡이가 되지 못하며 번뇌망상과 마장만을 가져 올 뿐이다.

우리 민족 가운데는 아직 종교가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일년에 한 두 번씩 천지하공과 사천 일월성신에 미신적으로 기도 행사하는 것을 교를 믿는다고

잘 깨닫는다면 그것도 큰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고 오는 것이 분명하게 하여야 하루라도 극락으로 살고 한달 한 해를 살더라도 극락으로 살고 평생 또는 세세생생이라도 극락으로 사는 것을 세우는 것이 되느니라.

옛날에는 부모가 싫다고 하면 인정 있는 아내일지라도 살지 못하였고, 부모가 좋다고 하면 인정 없는 아내일지라도 버리지 못하고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부부는 서로 의사가 맞지 않으면 합의한 결과로 이혼하게 되는 것은 자유세계에서 가히 막을 수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새로 서는 반면에는 부부가 되어서는 더욱 절대적 정조를 세우는 법이 서야 할 것이며 또 남편간에 서로 평등한 지조를 가지는 법이 서야 하는 것도 법계의 진리로 알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인륜도덕은 없어지고 평등을 부르짖는 이 때에 금수(禽獸)와 다른 인간적 윤리를 세우자면 여러 종교종파가 각기 종지로서 굳은 절제와 확고한 사상을 세우는 데 국가에서는 민족적 자결이 서게 되고 정당정치에는 노선과 정경이 서게 되고 국민에는 남녀간 정조가 서게 되는 원동력이 되느니라.

원리원칙과 종지방편과 주관이 다른 교에서 한 집합이 서로 오고 가게 되면 종지는 피차 상대가 되어 있는 까닭으로 내가 세우고자 하는 종지도 확고한 힘이 없고 저자가 세우고자 하는 종지도 확고한 힘이 없어서 서로 상실되고 어떤 중간적인 종지 하나가 나오는 것은 재래 일원주의 시대에 중도법이 되는 것이므로, 사회적 세계적 대범위로 교화하는 이

원주의 시대에 전종적 공로 법을 세우는 데는 승(僧)도 아니요 속(俗)도 아니요 공(空)도 아니요 색(色)도 아니요 유상(有相)도 아니요 무상(無相)도 아니요 각오(覺悟)도 아니요 계율(戒律)도 아닌 것이 된다.

계율을 지키는 데서 정조가 서게 되므로 교를 가지고 있는 자는 마땅히 계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니라. 종파가 나누어짐에 따라 자기 근기에 맞는 확고한 종지를 찾아 가는 것은 발달적이며 허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좋을까 아니면 저것이 더 좋을까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굳은 심신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런 심지도 지니지 못하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자기 종교를 가지고 나면 확고한 종지로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남편 아내가 아닌 남의 부부를 대하듯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종파는 종지와 방편을 세우는 원리나 원칙이나 방편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그 종파 안에서 종지가 통일되지 않는다. 종파의 종지를 굳게 가지는 정신을 세우지 않고 정절없이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기의 성품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도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지조가 없고 이원 다원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세우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한 불교라도 종파간에 종지를 다르게 세우는 것은 마치 유교가 다 같은 사람으로서 삼강오륜과 존비귀천을 다르게 세우는 것과 같다. 이제 인륜도덕은 무너지고 남녀 경계가 해방된 이 시대에 우리는 대승적 인도(仁道) 정신을 세우자면 천종 만파가 정조 흐린 사람과 같이 종지를 혼동하지 말고 돈독한 종지를 각자가 확고하게 세우는 데 있다.

(자료제공 종학연구원)

희사 ②

들어오는 재물이 적을 때에는 청백하게 받아서 조절하여 쓰고 재물이 많을 때에는 바른 곳에 잘 쓰면 복(福慧)이 구족하고 행복이 오래 가게 되느니라. 회사에도 소극적 회사와 적극적 회사가 있으니 자기 소유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희사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줄여주게 되니 소극적 회사가 되고, 수입이

조선화원장의 총지 등의 보감

노년기 건강관리



사람은 청년기가 있듯이 노년기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란 65세 이상을 뜻합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정신적·육체적으로 쇠퇴하고, 직장은퇴 등으로 사회적 활동범위와 생활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과 사별하는 경험도 빈번해짐에 따라 허무감, 고독감, 절망감 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방(동의보감)에서 보는 노화는 인체를 구성하는 정, 기, 신이 한정되어 있어 많이 쓰면 말라 없어지게 되므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마침내 인간의 생명이 소멸하게 된다고 봅니다. 정이란 생식활동과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물질인 생기를 뜻하며 포괄적인 생명의 기본물질로 간주합니다.

그렇기에 정, 기, 신의 간직은 생명력의 총량으로 정, 기, 신의 소모는 생명력의 쇠퇴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란 몸의 구성

과 활동의 가장 근본이며 몸을 지키는 기운으로 호흡을 통한 수련인 것입니다. 신이란 물질적인 요소가 아닌 추상적인 그 무엇으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제어하는 원리로 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신을 관장하는 기관을 심장으로 보며 오장은 모두 각자의 신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정, 기, 신 중에서 정은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적 측면이며 개체보존을 위한 생리적인 운동을 담당하는 요소입니다.

신은 정보라도 더욱 고차원적인 것으로 인간의 감정과 심리를 담당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정, 기, 신이 말라 없어지는 것은 초가가 타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으며, 독이 무너지면 물이 고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수양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수양한다는 것은 곧 정, 기, 신의 세 가지를 단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정, 기, 신을 단련하고 보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면 눈에 피

로가 쉽게 오고 글씨가 잘 안보이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탄력성이 없어지고, 잘 안 들리고, 쉽게 피로해지며, 여성의 경우 쉽게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우며 골절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기운의 변화나 외부의 변화에 저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리기 쉬우며 일단 병에 걸리면 잘 낫지 않고 근육의 운동과 기능이 떨어져 신체의 움직임이 둔하여 넘어지거나 외상을 쉽게 입기 쉽고, 요실금,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스스로 잘 관리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즐겁고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면 멋진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에는 눈에 피로가 오거나 글씨가 잘 안보이면 눈에 맞는 돋보기 안경을 쓰도록 합니다. 안경을 써도 물체가 잘 안보이거나 물로 보이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백내장 등이 의심되므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폐기능이 약화되므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절의 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운동은 규칙적으로 가볍게 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피부관리를 향

상 깨끗이 하도록 합니다. 일주일에 1~2회 정도 목욕을 하는 것이 좋으며 목욕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크림이나 로션 등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치아관리를 위해서는 식후에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사탕 같은 단 음식이나 담배는 치아에 좋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을 자주 측정해야 하고 과도한 운동이나 술, 담배 그리고 짜고 매운 음식은 삼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심한 일을 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므로 쉬 피로해지거나 현기증이 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 신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의복은 가볍고 흡수가 잘 되는 것이 좋으며,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옷 디자인은 입고 벗기에 편리 하도록 앞에 단추가 있는 것이 좋으며 활동하기 편한 옷이 좋습니다.

노년기라고 해서 남에게 의지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노화하게 됩니다. 건강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노년기의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여성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Advertisement for '여성美' (Women's Beauty) clinic, featuring a photo of the director and text describing various services like gynecology, fertility, and menopause.

여성美 한의원

- List of services and clinic information: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월경병, 임신기병, 임신병, 산후병, 기능성자궁요법(자궁단, 요실금 등)
- 비만 클리닉: 여성: 자궁 다이어트, 남성: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진료시간: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말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Media coverage section showing photos of the clinic on KBS and Yooka TV, with captions lik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nd '육아TV "전문"의 상담'.

Map showing the clinic's location at the intersection of Jangjeong-dong and Gyeongju-dong, near Starbuck and other landmarks.

Bottom section showing various medical equipment and services: 생혈액분석기, 자동팔강진단기, 초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작온욕기.

풍경소리

-부처와 중생

서운 스님은 주먹을 쥐었다가 손바닥을 펴면서 말했습니다. "부처되는 일은 이와같이 쉬운 것이라네. 다만 번뇌를 버리지 못하면 부처도 중생이고, 무명을 버린다면 중생, 그대로가 바로 부처인게지." "선문에 뜨는 달은 말을 하더라"중에서

-회초리를 기억하시나요?

옛날 한 선비가 있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장원급제하여 금의환양하는 길이었다. 며칠 후 고향 마을이 보이는 고갯마루에 이르자 갑자기 말에서 내려서더니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소파를 보는 줄 알았던 그 선비가 싸리나무에 대고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 싸리나무 회초리가 아니었으면 어찌 오늘의 영광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가끔 우리는 학생시절 선생님의 따끔한 회초리의 고마움을 잊을 때가 있다.

- 손광성(수필가) -

- 악담은 되돌아 온다

부처님 당시 길에서 부처님을 만나면 악담을 하며 흠을 잡어던지는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교도 중 한 사람이 부처님께 욕을 하며 흠을 잡어던지자 그것이 바람에 날려 이교도의 눈과 얼

굴을 덮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 해서, 또는 나의 의견과 다르다 해서 상대방에게 악담을 퍼부어서는 안되고. 내가 당신에게 앙심을 품지 않고, 당신의 악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허물은 고스란히 당신에게로 돌아가요. 마치 당신이 던진 흙이 당신의 얼굴을 더럽히듯이..."

- 김원각(시인)-

- 눈을 감으면 보여요

화담 서경덕 선생이 길에서 울고 있는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우는가?" "저는 다섯 살에 눈이 멀어 이제 스무해나 되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세상이 밝게 보이는 지라 한없이 기뻐합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제 집을 그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목도 헤갈리고 대문은 서로 같아 도저히 집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래서 울니다." "그렇다면 도로 네 눈을 감아 보아라. 집을 찾을 수 있으리라." 젊은이는 과연 눈을 감고서야 집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분별(分別) 이전(以前)으로 돌아가야 사물의 본모습을 오롯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젊은이처럼...

- 맹난재(수필가)-

(자료제공 : (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나도 한마디 항마(降魔)의 길, 부처의 길

부처님께 올리는 공물(供物)은 마땅히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 제자들인 스님들이 쓰는 것이니 만큼 적재적소에 아끼고 지혜롭게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즐겁도록 쓰여져야 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삼의일발(三衣一鉢)의 무소유로 평생 불도의 길이었으며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방편이 많이 개입된 후 절집 인연으로 이들 가운데 보다 어두운 미래의 길이 전개된다 하면 그 어찌 참담하지 않을까 싶다.

불법 인연되는 모든 분들은 진정한 삶의 항방(向方)을 찾고 남에게 빛 안지고 죄와 업(業)없이 깨끗하게 밝은 앞날을 기약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후출가인이라 할지라도 부처님께 의지만하고 이를 팔아 상(相)을 내고 편안한 육신을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절집 상주물은 모두 절약하여 꼭 쓸 만큼만 쓰고 법되게 활용하여 만인의 환희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후 이를 악용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쓰인다면 그 과보(果報)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니 모두 명심할 것이다.

여법(如法)한 나날, 일거수(一擧手), 일투족(一投足)이 부처의 길, 참된 수행의 길에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법계(法界) 중생의 진정한 수행은 부처의 말이 아니면 행하지 말고 어느 생이든 곧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공정하고 도(道)의 길위에 항마(降魔)의 자신을 구축해야 한다.

항마는 백만대군을 이기느니 보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탐진치 삼독을 이기는 것이 더 큰 것이니 스스로 마음을 극복하여 대웅(大雄)의 참 자손답게 내일을 위하여 극기(克己)로 정진일여(精進一如)를 소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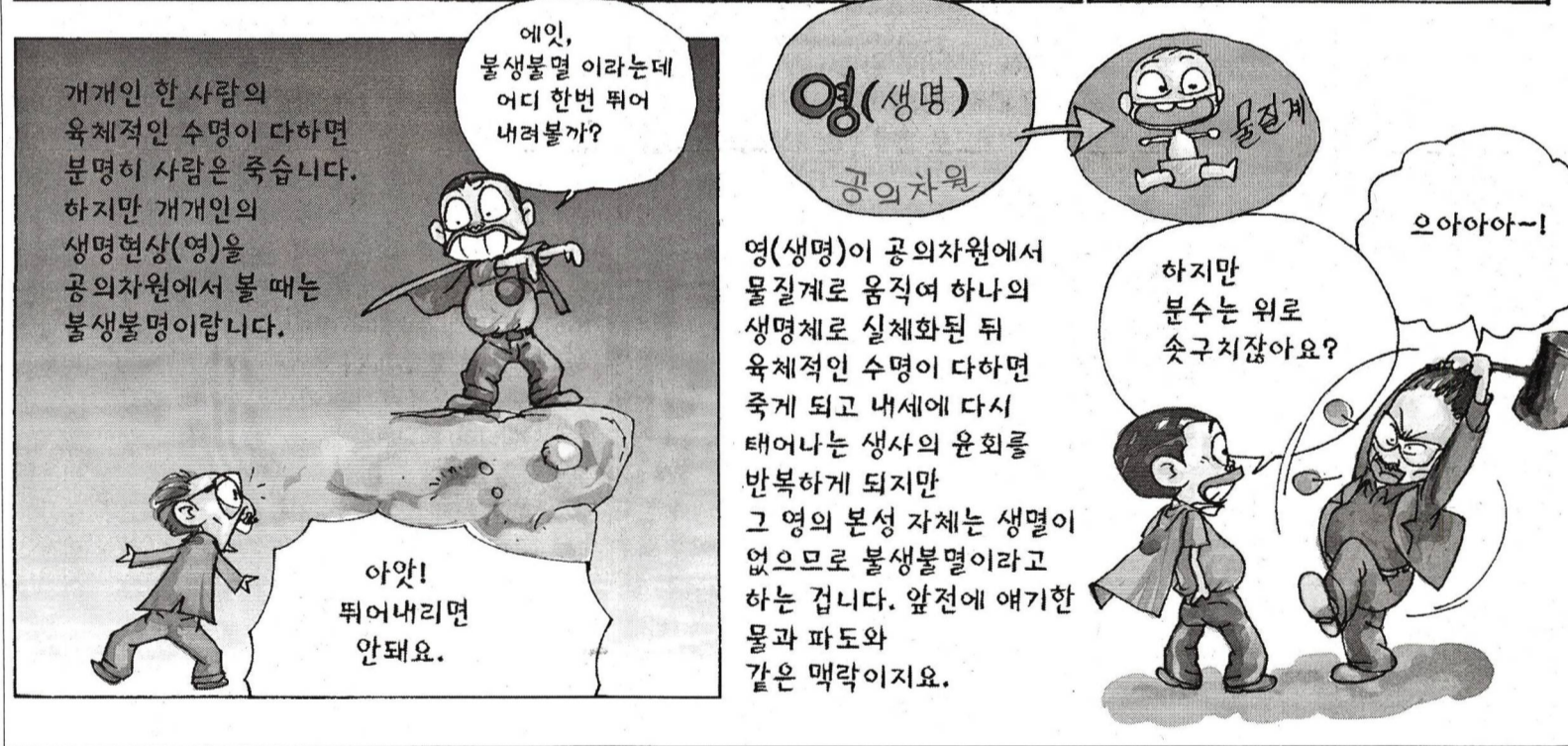
(계룡산 심우선사(壽牛禪師) 대행(大行)스님)

나도 한마디는 총지종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종보, 총지종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종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종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이메일 : kyjyj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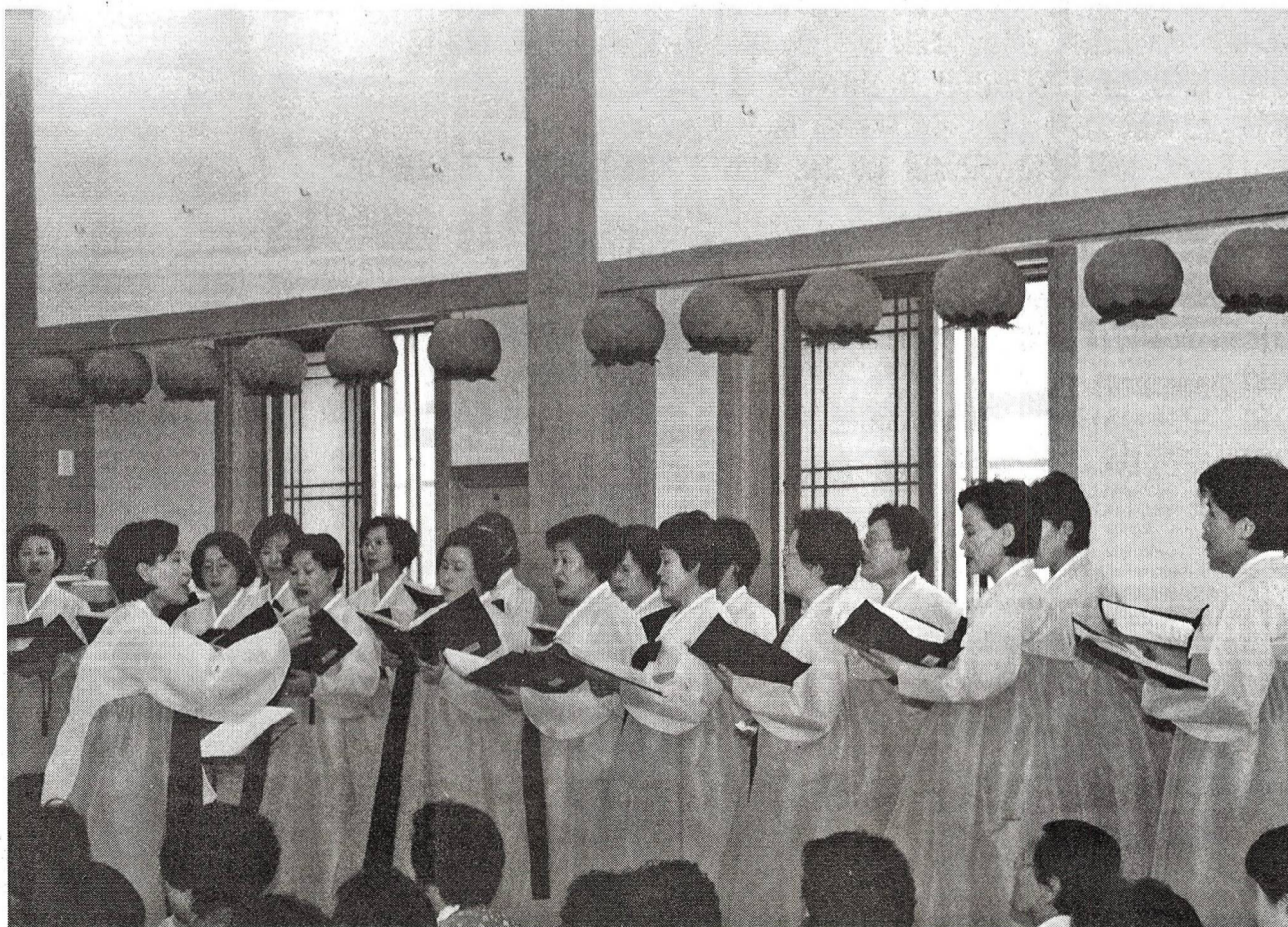
월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19화-

글:그림/정수일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서울·경인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모집대상 : 모든 불자
모집시기 : 수시
연습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연습장소 : 총지사
연락처 : 최채숙 단장 (02-922-3677)

새만금을 살리자

수경스님, 문규현신부 3보 1배 정진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파괴와 절망이 아닌 새 삶과 생명으로 희망으로 피어나는 새만금 갯벌이 되게 하소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해 서해안의 갯벌이 소실되어 생태계는 파괴되고 서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새와 조개들이 없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서해안 갯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경스님과 문규현신부등 수행단은 4월 1일 전북 부안에서 3보 1배 정진을 시작하여 5월 31일 광화문에서 대정진을 마무리 하였다.

부처님 오신날 전야제 및 전시회 종립 동해중 학생들의 신심고취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강경중)는 총기32년(불기2547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는 전야제 행사로 5월 4일 부산역 광장에서 웅장한 장엄등과 풍물패를 앞세우고 연등축제를 참가한 후 야간에는 부산역을 출발하여 서면 로타리까지 연등을 들고 시가행진을 하였다.

이날 행사는 부산지역 총지종 교도들과 함께 운회의 비취 장엄등과 대형 깃발을 들고 시가행진을 하며 부산지역 시민들에게 총지종에 대한 포교와 교도와 학생들에게 불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정각사 1층 강당에서 작년에 이어

고 중앙에는 승가대 학인스님과 봉녕사 비구니 스님 3백여명이 허리를 받치고 있고 끝머리에는 일 반 신도 2백여명이 뒤따르며 3보 1배 정진을 하였다.

이 수행단은 한 낮의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처절한 고행을 감내하면서 60여일 간의 3보 1배의 정진으로 5월 31일 광화문에서 대정진을 회향할 하며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을 재검 토할 것을 발원하였다.

종현종법위원회의

종현, 종법 위원회(위원장 의강)는 총지종의 종현과 종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비현실적인 조항에 대한 법규의 제정과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5월 26일 대구 개천사에서 위원회를 개

최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종현과 종법이 시행상의 문제점과 법규의 체계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종단의 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집행부가 변화될 때마다 개정이 되어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검토와 수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본 위원회가 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지 등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차후 승단총회에서 제반적인 문제점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의강)은 “종령 특정 대중사가 열반하여 종단의 현안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종단이 발전하는 방안에 합당한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였다.

불교계 최초 불교 환경 워크숍
21세기 환경문제 불교가 해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21세기 전지구적 화두인 환경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불교환경활동의 새로운 전망을 위한 불교환경 워크숍을 5월 23, 24일 양일간 충남 도고글로벌 콘도에서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사회부장 미산스님 등 조계종 종단 관계자를 비롯한 불교 환경 단체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교계 환경운동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산관동도로 재검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재검토, 새만금 살리기 운동등 불교계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환경활동을 평가하고 21세기 불교환경의제를 수립하는 자리였다.

어버이날 행사와 봄나들이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가정의달 행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5월 7일 총지종 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노인 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청운유치원, 강남롯데 백화점, 삼성SDS, 윌마트의 후원을 받아 각 파트별로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내 여러 기관들과 복지센터 이용자의 가족들이 준비한 식사와 다과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청운 유치원 어린이들의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 자랑', 가족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놀이와 춤 경연, 어르신들에게 사랑목걸이와 카네이션 달아주기 등의 행사로 모

처럼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강남 롯데 백화점 직원들은 “행사 참여 후 효과와 어르신 공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차후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월 13일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원봉사자들 등과 함께 강화군에 위치한 함허동천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랜드에서 하늘 빛 고운 티셔츠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였다.

신행체험 ②

부처님의 공덕에 감사



실지사 최체숙(원각)보살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이 다가온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새벽이건만 오늘따라 창문밖 사이로 얼굴을 내미는 태양이 유별나게 밝게 비추며 빨리 일어나라 손짓한다.

총총한 걸음으로 실지사 대문을 들어선다. 정원에 펼쳐진 나무들과 꽃들이 방긋방긋 인사를 하며 내 마음에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를 하게 한다.

이른 새벽이지만 서원당에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옴니반례회를 염송하며 선정에 잠겨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염송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조심조심 불단 앞에 나가 분향을 한다.

이렇게 서원당에 다닌 지도 어느덧 몇 십년이 되는 것 같다. 내가 만약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을까?

‘아마 나를 중상모략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번민과 고뇌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 즉 ‘사람의 고통은 인간관계 속에서 생긴다. 그것은 내마음으로 그린 여러 가지 상(相)때문에 스스로 벽을 쌓고 나와 남을 갈라놓는다. 이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니 은원(恩怨)이 끊이지 않는다. 이때 어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안으로 돌리며 부분적 경험으로 판단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나와 너의 대립이 사라지고 모든 것은 조화가 이루어진다. 나를 세우지 않으면 결코 대립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의 조화로움임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계 모든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고이고이 간직할 채 하루하루 부처님의 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법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생활한다.

며칠 전 종령 특정 대중사에서 열반하여 못내 인생의 무상함과 총지종 창종당시 종암동에서 여러 스승님과 교도들이 함께 종조 원정님의 법을 듣고 의식과 의례를 만들고 단칸방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주린 배를 움켜쥐며 교화를 하신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지금은 교화가 활성화되어 종단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그때 교화하시는 스승님들은 오직 중생제도의 일념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얼굴에는 항상 밝은 미소가 가득하였으며 자신들의 처지는 생각지 않으시고 고통받는 교도들을 먼저 생각하

시며 아무리 먼 거리라도 걸어서 직접 방문하시어 가정불공을 하시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었다.

나도 이런 스승님들의 모습을 보며 항상 미안함과 그 때 잘 모셔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막상 그분들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오늘은 심인행 전수님 제사날이고 오후에는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연습날이다.

아침 일찍부터 교도들이 실지사내 나와 제사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심인행 전수님은 총지종 창종 당시 종암동에서 당신의 자녀들은 돌보지 않으시고 원정님과 환당님을 극진히 모시고 스승님들의 법의를 손수 바느질하시어 만드시며 항상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시는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이셨다.

나의 머리에도 하얀 머리리카미 하나 들쭉 늘어만 가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자비 광명을 선사하시어 이렇게 건강하게 밝은 모습으로 살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각자 사회에서 맡은 바 일에 충실하며 생활하고 있음에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그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원당에 나가 옴니반례회의 진언을 염송하며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남을 용서하고 어떻게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항상 웃으면서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남이 편하고 행복하겠지 하는 마음이 집으로 생활하지

번뇌와 고민은 자신의 망상 집착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조화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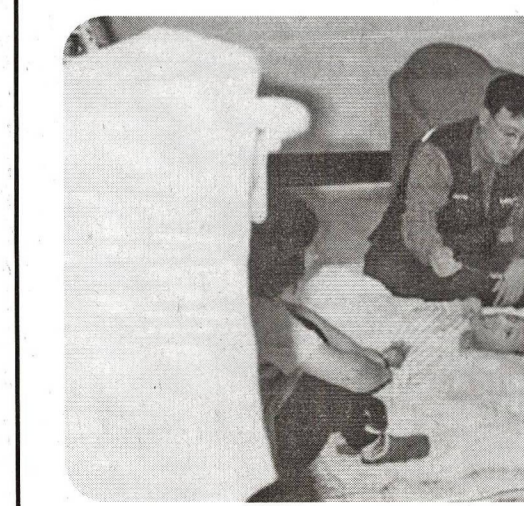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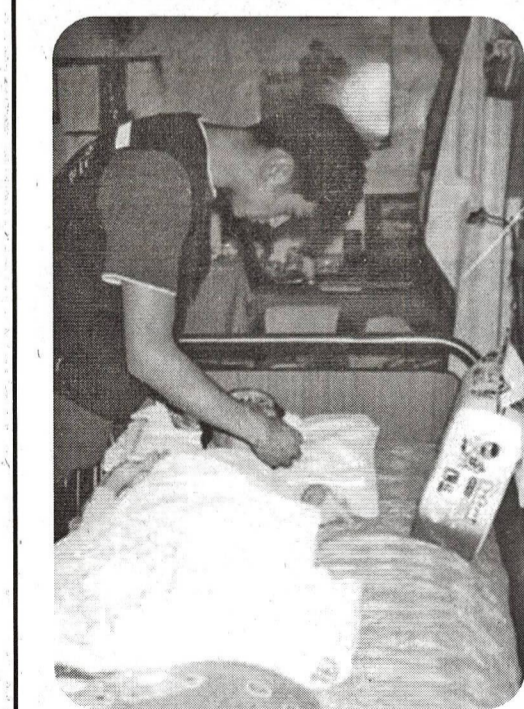
만 중생인자라 외부의 사소한 환경에도 어쩔 때는 괴롭고 가슴 아플 때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망상과 집착에 의해 번뇌에 빠진다는 경전의 법문을 상기하면서 “그대 내가 마음을 조금만 바꾸고 손해를 보면 되지”하고 마음을 비워버리니 편해지고 매일 매일의 생활이 즐겁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전에는 몇 년 전부터 실지사 보살님들이 뜻을 모아 어렵고 힘든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돕자는 의도에서 실지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회 회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시금을 모금하여 후원금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구나 하는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오즈음은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장을 맡으면서 각종 법회나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등 각종 종단행사에 참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창종 당시에는 스승님들이 시키면 아무 불평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 절에 와서 옴니반례회를 지송으로 염송하여 불공을 하면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고 매일 매일 불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주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꿈 희망 사랑 Lovebank 사랑은행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사랑은행(Lovebank.or.kr)은 On-line과 Off-line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사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Off-line

개인, 가족, 단체, 기업

예금주(회원) 가입
사랑예금 등록

예금의사 확인
홈페이지 예금
등록 및 공지

예금선택
자원봉사, 물품
현금, 스타사랑
펀드가입
사랑, 가족, 실버

수혜지 결정

수혜지 선정 및 프로그램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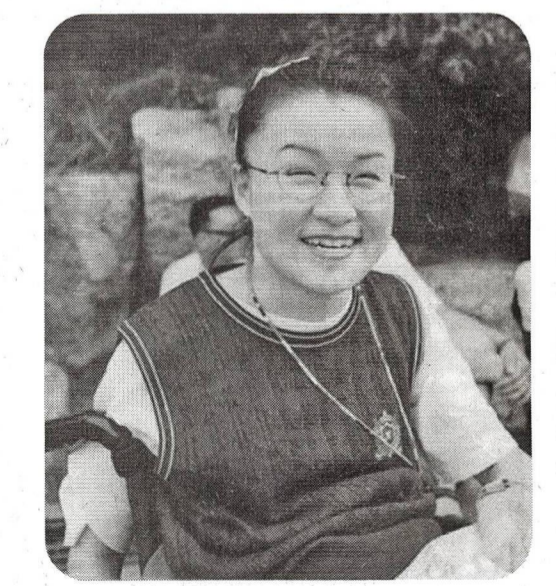
예금지출 영수처리

On-line

Lovebank.or.kr 사이트 운영

예금주 구분 및 예금직립
수혜대상자 선별
자원봉사 대상시절 선별
예금 및 프로그램 진행
지출내역 공개 및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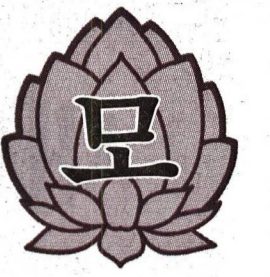
사랑은행 운영진
청소년 미래연구소



청소년 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사진으로 보는 종령 육성 대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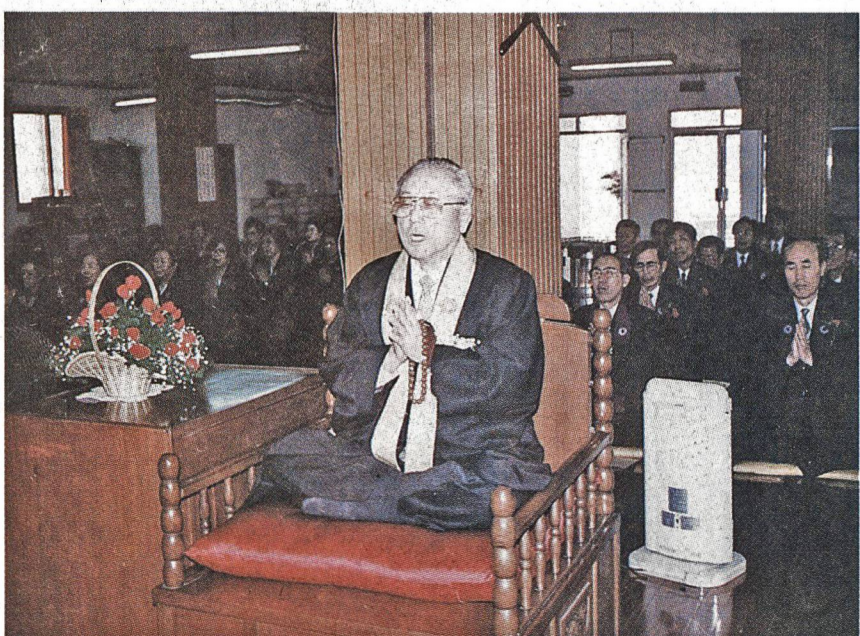
▲총기32년 5월 4일 새벽 5시에 입적하시어 5월 13일 고결식을 끝으로 평생동안 헌신한 총지종의 모든 스승님과 교도들을 뒤로 한 채 영원한 열반의 세계로 떠나셨다.



▲육성 대종사가 창종당시 주교로 재임한 포항 선교부 불단이설봉사 후 종조 원정 대성사와 교도들이 함께 한 자리 육성 대종사는 창종 당시 포항 선교부 주교로 재임하면서 하루에 3개 지방을 다니시고 또한 서울 중앙동에 위치한 본원에서 종단행정을 총괄하시며 종생제도의 일념과 밀교문에 대한 신심으로 종단의 기틀을 만드셨다.



▲창종의 일역을 담당한 환당님과 복지화, 법장화 스승님 및 종단의 정사님들과 강공 후 총지사 계단에서 함께하고 있다. 육성 대종사는 강공때마다 "인욕과 하심으로 진에심과 원망심을 없애고 유향순수와 지비지혜로써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과 오세대제도에 응맹진하겠습니다."라는 실천서원을 강조하시며 종조 법설집에서 불의 권속은 대별해서 불, 보살, 명왕의 세가지이다. 그런데 밀교는 현교와 달라서 문자불인 범자를 관하고 진언을 염송하며 심밀관행을 주로하는 진실법이기 때문에 특히 명왕이 활동이 현저하다. 삼륜신이란 자성륜신과 정법륜신과 교령륜신을 말하는 것인데 자성신은 불위이므로 지비이덕을 갖추었고 정법신은 보살위이므로 지비로써 삼수하며 교령신은 명왕위이므로 지혜로써 절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면서 밀교의 심륜신에 대해 설명하셨다.



▲전국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치러진 종령 추대식에서 종단의 발전과 모든 종생의 해탈을 서원하셨다. 종령 추대식에서 종령은 이제 종령에 취임함에 즈음하여 불의를 준봉하고 법통을 승수하여 종단의 발전과 국가의 진호를 위하여 전 인류의 복지증진 및 일체 유행무형 종생의 해탈을 위하여 종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가 불전에 맹세하나이다.라고 불전에 선사했다.

모든 종생의 등불이신
종령 육성 대종사님이여!
세속에서 닦은 인연과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속에
극락왕생 하소서



▲창종 후 통리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종단의 사정과 서로간의 반목으로 얼룩진 종단의 흔적을 손수 닦으시며 종단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원정 대성사와 함께 교상과 사상을 정리하고 총지종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인 몸마니반메축을 염송하며 신,구의 심밀관행법으로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을 만들었으며, 종단의 모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종생들을 제도하는 데 앞장서며 종단을 한국 불교의 주요종단으로 성장시켰다.

육성 대종사님께서 1972년 총지종 창종 구성원으로서 종조 원정 대성사님과 함께 총지종의 기틀을 마련하고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불공하는 자세로 일상에서 생활하는 총지종의 종지로서 교화를 활성화시켜 불교계의 주요종단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육성 대종사님께서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열반 이후 제2대, 4대, 6대, 제7대 종령으로서 총지종의 스승님 및 교도들에게 "화평하고 화합하여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되고 진실한 말을 행하고, 항상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참회하고 선행을 행하라"는 법어를 강조하시며 총지종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다.



▲총기32년 4월 23일 생애 마지막으로 춘계강공회에 참석하시어 전국 스승님들에게 스승은 매일 교도와 접촉하는 교회의 제일선에서 활동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사명이 중차대하고 따라서 종단의 성쇠를 좌우하는 무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스승은 세간고락에 초연하여야 하며 먼저 자기의 인생관이 확립되고 그러한 지표로써 생활하는데 그 스승의 인격이 완성되고 따라서 이해의 영육에도 굴복하거나 동요되지 않는 지조있고 정의에 투철한 모범적이 스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모든 교도들은 그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함으로써 복전이 될 것이고, 일반이 흠모하여 교화는 날마다 흥왕하고 부처님과 일체종생이 다 기호할 것이다. 승보보살행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인생의 고락을 겪으면서 그것을 소재로 인격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오상성신의 불퇴전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스승으로서의 자격과 행동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셨다.



▲전국 스승님들과 성불탑 앞에서 불법에 귀의한 스승의 사명을 다짐하고 있다. 첫째 삼세중에 보리에서 퇴전하지 아니하고 모든 계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둘째, 삼보를 공경하고 스승을 공손히 받들어서 제자의 도리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셋째, 종단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교법과 국법을 준수하고 화합과 단결에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넷째, 삼보와 부모와 국가와 종생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감을 것을 맹세합니다. 다섯째 보살의 행원으로 삼세중에 중생제도를 버리지 아니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받고 이를 극복하겠습니다.



▲육성 대종사는 종조 원정 대성사로부터 종령의 법맥을 이어받아 종단의 최고 어른으로서 법통과 교법을 전수하였으며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을 전수받아 전법관공수계를 통해 스승들에게 종생을 교화하는 법맥을 전수하셨다. 이 관공수계를 통해 총지종의 스승들은 부처님 앞에서 불법을 전수하고 종생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며 종단의 계를 지키며, 자신의 인락보다 종생들을 먼저 생각하며 항상 자비를 실천하도록 맹세를 한다.



▲계미년 1월 16일 전국사원스승님들과 올해에는 종단의 발전을 위해 서로화합하고 항상 수행자의 자세로 응맹정진하여 교화를 활성화시키고 다짐을 한 후 일평생 동안 종생제도와 종단의 발전에 기여하며 생을 보냈던 법사주교인 하정님의 퇴임식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종령 육성 대종사 행장

- 법 명 : 육정(祿靜)
- 속 명 : 김군(金均)
- 생년월일 : 1920. 6. 21 출생지 : 경북 경주 분관 : 경주
- 행계품수 : 종사 (출세간위) - 1978.10. 1
- 대종사(법자재위) - 1980.10. 1
- 출가이력 : 1972. 9.15 청정지 정사 품수
- 1972. 12.28 포항선교부(현 수인사) 주교
- 1973. 6.27 통리원 총무부장, 초대 원외회 의원, 초대 중앙종의회 의원
- 1974. 7.26 통리원장, 총무부장 겸임
- 1978. 10. 1 출세간위 종사 품수
- 1980. 7.18 종령 승계
- 1980. 9. 8 총지종유지재단 이사장
- 1980. 9.16 제2대 종령, 법자재위 대종사 품수
- 1982. 5.30 총지종유지재단 이사장 유임
- 1986. 5.30 총지종유지재단 이사장 유임
- 1988. 9.14 대동학원 이사
- 1989. 3. 2 종합학교법인 대동학원 이사장
- 1989. 7.27 제4대 종령, 총지종유지재단 이사장
- 1991. 4.17 기로원장(現)
- 1991. 9.15 인사위원회 위원장
- 1994. 2.17 제6대 종령, 인사위원회위원장, 전당건설위원회위원장
- 2000. 2.16 ~ 제7대 종령(現), 인사위원회위원장(現), 전당건설위원회위원장(現)